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2. 27.(목) 12:00 (2025. 2. 28.(금) 조간) 배포 2025. 2. 27.(금) 09:00

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보안취약점을 집중 발굴하여 개선한다!

- 과기정통부, 2025년 소프트웨어(SW) 보안취약점 신고 포상제 추진 -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상임, 이하 '과기정통부')와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상중, 이하 'KISA')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보안 취약점 발굴을 장려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25년도 **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**를 2월28일(금)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정보통신(IT)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**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보안취약점도 매년 크게 증가**하고 있다.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**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개선을 지원**하고, **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 예방**을 위해 **보안취약점 분석 등에 높은 지식과 경험**을 갖춘 **착한 해커(화이트해커, White Hacker)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012년부터 시행**하고 있다.

※ 전세계 보안 취약점 통계(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) : 25,083건('22년) → 29,065건('23년) → 40,290건('24년)

특히, 올해는 딥시크 등 **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보안 쟁점이 크게 대두**되면서 **국민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대해 불안이 커지**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추진 과정에서 **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를 강화하게 되었다.**

이번 인공지능 서비스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는 **국·내외 공개자료(오픈소스)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원본 모형**을 대상으로 ▲ **인공지능이 운영되는 환경**(앱, 웹 등)의 **보안취약점**, ▲ **인공지능 입출력 등과 관계된 코드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**, ▲ 그 외 **보안기법 우회 등 침해사고 악용 가능성이 있는 보안취약점**을 찾아서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인공지능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는 **2월 28일(금)부터 6월 30일(월)까지 4개월 간 진행되고, 포상금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총 5천만 원**이 지급될 예정이며, **일정 및 포상금 규모는 신고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**될 수 있다.

국내·외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**'보안 취약점 정보포털' 누리집**(kvnd.krcert.or.kr)을 통해 **신고·접수를 진행**할 예정이다.

<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도 개요 >

신고된 취약점은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전달하여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, 필요 시 '보호나라' 누리집(www.boho.or.kr) 보안공지를 통해 대국민 주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.

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"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확산은 선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큰 흐름" 이라고 강조하면서

"인공지능 **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,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발굴 및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.**" 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	책임자	과 장	최광기 (044-202-64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환 (044-202-6461)
	한국인터넷진흥원 취약점분석팀	팀장	팀장	이창용 (02-405-5172)
		담당자	책임연구원	김현승 (02-405-4968)